

어호와께서 청년의 눈을 여시매 (왕하 6:17)

일본에서 같이 양전도사님 순회팀 예배할텐데 하나님이 중요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뭐 하려고 하지 않으셔야돼요. 믿고 계시면 돼요. 이번 주간에 우리 교회가 해야될 일이 뭔지? 엘리사가 이 기도를 한겁니다. 우리 청년들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청년들이 영적인 세계 알아야 한다. 이걸 모르면 교회만큼 재미없는 곳이 없다. 그래서 기도해주시고요. 왜 그런가? 인간은 영적으로 볼 때 그릇이에요. 그릇.

1. 그릇, 집

고전4:7-9에 보면 보배를 질그릇에 담고 있다. 그리고 집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느냐 귀신이 거하느냐, 인간이 인격도 있고 대단하지 않나. 그런데 인간은 근본이 그릇이에요. 영을 담는 그릇이요. 이 그릇이 어떤 그릇이 있습니까? 말하자면 빈그릇이 있어요 빈그릇. 지금 보통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다. 이 사건 아닙니까? 창세기3장 사건이다. 먹지 말라고 한 이 언약 어기고 하나님 떠났다. 영적으로 볼 때는 빈그릇이다. 롬3:23 보니까 재앙이 들어온거지. 그리고 영적으로 볼 때는 마귀에게 잡혀있는 상태.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면서 자꾸 우상숭배 한다. 우상숭배를 자꾸 하니깐 어떤 문제 생기나? 악령이 들어온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우상숭배 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상숭배 한다. 제사드리는 거 전부 귀신 불러들이는 거예요. 이걸 계속 하니깐 여기에 누가 들어옵니까? 마12:43-45에 귀신이 집을 찾다가 들어온다. 이 속에 귀신들을 불러들이는거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나? 정신이 시달리는거다. 요즘에 정신문제 심각하잖아요 정신문제. 이 귀신이 삶 속에 파고들어요. 증독으로 잡고. 멸망으로 끌어드리고 결국은 지옥으로 끌고들어가. 이 사람을 영원히 멸망시킨 다음에 또 후손에게 파고든다. 이렇게 무서운거다.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는 거는 그 속에 다른 영이 들어간거다.

그리고 더 심각한 거는 어떤 문제 입니까? 이 그릇에다 아예 귀신을 불러들인다. 세상 살아보니까 답이 없다. 맨날 육신적인 거 뒤져보는데 답이 없어요. 아무리 맛있는 거 먹고 편안한 데에서 자도 인생이 답이 없어. 이러니까 사람들이 답을 찾기 위해서 내면을 뒤진다. 이래서 네피림에 빠진다. 40일 집중해서 기도하면 이게 보여요. 말 4:1-11. 마귀가 저 높은 산꼭대기에 마귀가 보좌에 앉아있는 게 보여요. 이게 나타나서 예수님한테 얘기했듯이 내가 다 주겠다. 하나님 경배하지 말고 나를 경배하라. 그러면 다 잊드린다. 이래서 이 사람들이 그 그릇에다가 사단의 영을 담기 시작한다.

그래서 이 영적인 게 내려와서 산에 붙어요. 영적인 게 나무에 붙어요. 제주에 가보니까 자꾸 나무에 신이 내린다고 하잖아요. 이 영적인 게 바다에도 붙어요. 바다신, 포세이돈 이런 게 전부 귀신이다. 진안 같은 데는 폭포에도 붙어요. 폭포에 무당들이 와요. 어떤 데에는 집에도 붙어요. 어떤 집은 너무 좋으면 안 들어와요 귀신 붙어서. 물건에도 붙고 그림에도 붙어요. 큰우상 만들어놨는데 거기에도 와요. 그런데 산이 능력이 나타난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온 게 붙으면 능력이 나타나요. 이 산을 섬기는 거 같은데 영들을 섬기는거다.

이 산, 나무, 바다는 말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영적인 거는 사람 뒤에 와서 붙는다. 이걸 네피림이라고 해요. 한국에서는 신내림이라고 한다. 뒤에 영적인 게 와서 붙으면 눈이 열린다. 음성의 세계를 보기 시작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다. 양성 있고 음성 있고 과학적으로 눈에 보이는 게, 보이지 않는 게 있다. 그래서 보이는 것에는 눈이 두 개가 있다. 육신의 눈이 있다. 그리고 천눈이라고 해요 이 사람들은. 이게 뭐냐면 거의 세계를 본다. 말하자면 중국에서 하는 기운동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 세계 본다. 기를 한국에서 일본에 주기도 하고 그런다. 그래서 예전부터 스승이 제자한테 안수하고 주는 게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이 힘이 생긴다. 왜냐면 이걸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은 통한다. 우리는 아예 인정을 안 하니깐 이상한 소리한다 그런다.

그런데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 나타난다. 이 사람이 보는 거다. 여기에 세 가지 눈이 있다. 말하자면 귀신의 세계를 보는 눈, 이게 중요하거다. 그래서 지금도 영성하는 사람들은 혜안을 열려고 한다. 키는 스승이 와야 된다는거다. 영적스승이. 예전에 한국에 유명한 성철스님이라고 있잖아요. 이 사람이 거칠잖아 스님이. 유명한 일화가 있다. 대통령이 왔는데도 쳐다보지도 않아. 워낙 영적인 힘이 있으니까 권력자가 끔찍 못해. 그 밑에 제자가 책 보고 깨달았다고 하니깐 욕을 바가지로 했대요. 눈이 열려야 돼! 하고. 전부 아는 게 육 밖에 몰라. 말하자면 무당들은요 귀신들려 있다니까요. 귀신하고 대화하고 보고 그래요.

그리고 귀신을 움직이는 단계로 올라 뛴다. 중급급 되는 사람들은 귀신을 부려. 사업하는 사람들 도와줘. 마지막에는 부처의 눈이 열려야 된다고 한다. 큰 귀신이 온 거예요. 내가 신이다 이렇게 나온다. 문선명 이런 사람은 큰 영이 온거다. 지금 현장은 이 사람들이

장악한다. 증거있습니까? 일본은 불교가 장악하고 있다. 지금 창가 학회 이런 게 전부 불교의 지식들이다. 이걸 잘 이해 하셔야 해요.

그래서 지금 청년들을 이 단체가 미혹하고 있다는 사실. 그 중에 청년들 엘리트들을 사로잡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미국을 사로잡은 프리에이슨이 이 내용 가지고 장악하고 있다. 지금 명상운동 하고 있다. 아무리 세상을 뒤져봐도 답이 없어요. 선배들이 나와서 얘기해준다. 뭐가 나타날거다 기다려라. 명상이 그거다. 모든 프로그램 멈추고 기다려라. 근데 와요. 오면 능력이 나타나요.

그리고 요가, 이게 전부 귀신운동이에요. 요가 전부 이게 신을 통하는 자세들이예요. 고행하면서 영을 기다리는 거예요. 샤먼 알잖아요. 일본에도 샤먼 있어요. 샤먼들이 주장하는게 신내림이다. 무당을 제일 고민이 이거예요. 영이 오느냐 안 오느냐. 고생합니다. 우리는 새벽기도 이빨도 안 닦고 오는데 그 사람들은 그 새벽에 목욕하고 온다. 그것도 오염 되면 안된다고 계곡 물에....

더 무서운 건 뉴에이지운동이다. 문화 속에 들어와서 점성운동 한다. 청년들이 별짓 다 한다. 단채로 섹스도 해보고 별짓을 다 한다. 그런데요 이 명상하다가 뭐가 와요. 놀래는 거예요. 어? 이게 뭐야? 빠져든다. 그런데 교회가 정말 중요한 거 놓치면 안되지 않나. 인간은 영을 담는 그릇이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를 모신 그릇인데 이걸 인정할 안 해.

고전3:16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집이다. 고후4:7-9에 그릇이다. 예수님이 요15:4에 너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는 이 축복을 누려야 하는데 이걸 못 깨닫고 있는거다.

그리고 모든 가치를 육으로 이해해요. 나는 공부 이 정도 했으니까 이 정도 밖에 안된다. 이런다. 나는 돈이 이 정도 밖에 없으니까 별볼일 없다 이런다. 여러분 어느 영이 임하느냐가 다다. 청년들에게 이걸 깨닫게 해야 한다. 귀신을 천사를 모시고 다니는데도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를 모시고 다니면 어떤 능력이 나타나겠나?

엘리사가 이 눈을 뻐다. 엘리사가 이 기도 했어요. '청년의 눈을 여사' 결국은 이거다. 청년들이 눈이 열리나 안 열리냐. 거기에 모든 관심이 있어야 한다. 왜냐면 너무 어리면 힘들어. 어느정도 청년되면 실패도 하고 내가 별볼일 없다는 것도 알아. 그래서 집중한다. 그래서 이게 우리 교회가 해야될 일이다.

2. 엘리사 - 청년의 눈

1) 왕상19:1-20

너 말고 칠천인이 남겨있다 하셨다. 다 네피림으로 빠져들고 있는데 아니라는거다. 칠천인이 남겨져 있다는 거다. 우리보고 렘넬트 세우라는거다. 칠천인 이라니까 특별나게 아니에요. 렘넬트 키우라는 거다.

2)왕하4:10

이 운동을 하는데 칠천인을 찾기 위해서 미션홀을 꼭 까는거다. 진짜 칠천인이 있으면 죽전에만 있겠습니까? 전국으로 가야지, 일본에서도 찾고, 중국에서도 찾아야지. 찾으려면 미션홀. 우리 교역자들이 들어가고 렘넬트들이 들어가길 미션홀이 없어요. 맨날 한국만 쳐다보고 있는데 어떻게 돈 벌니까? 일본을 가 봐야 돼요. 못 사는 나라도 가봐야 돼요. 맨날 갈혀있어. 직장에. 여러분 사장은 여러분한테 진심으로 안 줘요. 그만 안 들 정도로만 줘요. 그 돈 받아가면서요. 그러니까 미션홀의 축복에 눈 떠야

3)왕하4:38-42

공동체였다. 내거 먹었다.

4)왕하2:9

그리고 왕하 2:9이 중요하다. 엘리사가 주도했다. 엘리사가 어떤 사람인가? 엘리사가 엘리야를 하나님님이 데리고 가는 거 알잖아요. 스승이 가니까 누군가 해야 될 거 아니냐, 좋다! 그리고 끝까지 쫓아간다. 가는데 길같이 나온다. 이스라엘의 수치를 없앤 곳, 할례를 행한 곳, 구원의 축복이다. 여기 머무르라. 여기 있어라.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도 가. 그리고 또 벨엘에 머물러. 벨엘은 하나님의 집이다. 얼마나 축복하기 좋습니까? 자 또 가. 여기서 아닙니까? 여기서도 완전히 축복의 성을 무너뜨린 곳이다. 여기 있어라 하는데도 가. 그리고 요단을 건너되라. 요단의 상징이 뭔가요? 다시 광야로! 이 광야에서 모세가 힘을 얻었던 현상이예요. 이스라엘이 힘을 얻었던 현상이다. 거기에 엘리사가 들어간거다. 거기에서 진짜 영적인 힘을 얻는다. 교역자에게 정말 필요한 게 영적인 힘이 있어야 한다. 교역자는 진짜 24 해야 한다. 우리가 경건하게 살자, 그거 아니다. 24. 다른세계로 들어가야 한다. 다른세계로 들어가서 힘을 얻어야 한다. 왜냐면 칠천인을 눈 열어줘야 하는데 교역자가 영적인 세계 모르면 어떻게 하겠나?

5)왕상18:1-4

오바다가 이 역할을 했다. 중직자들은 선지자 키워야 한다. 특히, 레위부 먹여야 돼요. 그래서 진안공동체는 레위부 공동체예요. 교역자들이 기도해야 돼요. 교역자들이 진짜 기도 깨닫고 현장 가야 돼요. 바울이 아라비아에 가서 성경을 그리스도로 다 정리하고 나왔어요.

바울이 정리한 메시지가 다 서신서 아닙니까? 그런 거 없이 덜커덕 신학교 가서 목사 돼버린다. 신학교는 신학공부 하는 데다. 그렇게 나와서 본인도 병 찌고 교회도 병 찌고.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교역자들의 기도공동체였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현장으로 가고. 이게 안되어 있다니까요. 이걸 오바다가 깨달았다. 그래서 선지자들 먹이고 재웠다.

6)왕하5:26

중요한 사건이다. 나아만을 고쳤다. 아람나라의 군대장관이다. 나아만이 또 재물까지 가져왔다. 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적국의 군대장관이 친구가 되고 재물까지 생겼다. 그런데 엘리사는 거부했다. 나아만이 왔는데 그럼 잘 지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재물 받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얘기했어요. '지금이 어느 때인가?' 여러분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성전 헐어버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성전 개혁 하셨어요. 네가 성전이라고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안양동부교회 성전 건축하고 힘들어 하는 거 같다. 안양동부교회 정체성까지 흔들흔들 하는 거 같다. 안양동부교회의 정체성은 복음만 말하고 기다려 주고 그러다. 그런데 바뀌었어. 빗져서 힘들잖아요. 그거 가지고 되겠다 말이다. 이걸 잘 깨달아야 돼요. 지금이 어느 때인가를.

7)왕하6:17

그래서 도단성에서 뭐 한 줄 아십니까? 눈을 열었었어요. 청년의 눈을 열었었어요. 청년들이 인생에 중요한 답 찾기 위해서 집중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없어요. 방황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그걸 보고 청년들 옥하잖아요. 아니에요. 끌고 들어와야 돼요. 이런 억지로 하면 안 돼.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청년들 대학생을 청소년을 집중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12월에 대학생들 집중시키라는 마음을 주세요. 마음을 계속 쫓아. 내가 급하게 이은숙준목님 마주했는데 애들 좀 같이 좀 있어줘라. 왜냐면 있어야 돼. 대학생들이 집중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돼. 성탄절인데...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집중해야돼요. 이게 키예요. 영적인 눈 열리지 못하면 그건 빈그릇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볼 때 뒤통이를 봐야 돼요 뒤에 것. 뒤에 무슨 영이 붙어있는냐가 중요한거다. 저는 사람 만나면서요 저거 빈그릇이구나. 육밖에 몰라. 여러분 그건 아무 가치 없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영을 담는 그릇인데 이걸 못 깨닫고 있다. 모르고 세상 뒤져서 답을 찾으려고 한다. 답이 어딴어요. 솔로몬이 그랬다. 답 없다.

8)왕하13:20-21

엘리사의 죽음이다. 묻혀버렸어요. 찾아야 됩니다. 묘실로 들어간 도단공동체를 찾아야 돼요. 이게 우리 교회에게 주신 미션이다. 진짜 이거 하셔야 돼요. 아니 교회 방향이 계속 목사님 통해 주신 게 이거 하라는거다. 청년들 눈 뜨게 만들어줘야 한다.

3. 바울 - 마음의 눈

바울이 에베소 성도 향해 기도한다. 행9:15에 바울을 보고 하나님께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했다. 이 눈 열어주셨다. 어떻게 열어주셨나? 그 그릇의 높이, 너비, 깊이, 길이. 자, 이거 깨닫는 만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임한다. 여러분 그릇을 넓혀주세요. 그릇이 소주잔 같은 그릇이야. 특 하면 빠지고. 누가 나 안알아주면 빠지고. 그릇이 넓어야 돼. "달라이라마" 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바다와 같은 그릇을 가진 스승이라는 뜻이다. 얼마나 그릇이 낮은지. 우리가 수준 낮게 정치인처럼 되면 되겠냐? 큰그릇이 되어야 해요. 눈이 열려져야 해요. 진짜 그릇이 우주처럼 넓어야지요.

엡1:21에 모든 통치 권세... 이게 다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있다. 이게 전부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있어요. 그리고 교회는 뭐냐? 교회는 그의 몸이다. 만물 위에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나는 만물 위에 있어요. 모든 정사, 권세, 능력, 주권 위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종시킬 수도 있고 충만케 할 수도 있다. 정치인들 놓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충만을 찾으셔야 한다. 엡1장에 나온다.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 내가 충만해야지 세계복음화 한다. 사람이 어디 안 좋아 보세요. 다 약해집니다. 모든 게 다 약해진다. 내가 충만해야지 세계를 쳐다보지. 늘 피곤한데 세계복음화 관심 없다. 소파만 좋아하지. 소파에 누워서 편안하게. 내가 에너지가 넘쳐야지 싸우려고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영을 담는 그릇이에요.

1)엡1:3 영혼

여러분의 영혼이 충만케 되어야 해요.

2)마음. 엡1:23

마음이 힘을 얻어야 돼요. 마음이 에너지가 넘쳐야 돼요. 마음이 늘 에너지가 없어. 학교 다닐 때 보면 늘 울고 오는 애들이 있어. 덩치도 큰데 늘 울고 와. 가서 혼내줘야지 하고 가면 자기보다 작은놈한테 맞아서 울고 와. 마음이 약한 거예요. 나는 누가 상처를 크게 받아서 뭐가 했더니 별거 아니야. 마음이 약해서. 기 썩 사람이 똑같이 대학 나와도 기 썩 사람이 세상을 장악한다. 우리는 마음의 힘, 이 말조차도 못 알아들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있다니까요. 한번은 제가 캄캄한데 혼자 가야 됐어요. 그때 두려움이 생기더라. 그때 제가 기를 모았어. 에너지를 모았어. 그랬더니 두려움이 없어져요. 이 마음의 힘을 모아야돼요* 이런 게 있다가니까요* 맨날 좋은 음식만 드리시려고 하지 마시고 하늘에 속한 충만한 복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는 거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으

로 여러분의 마음을 충만하게 하세요.

3)엡3:19 육신

우리는 육신이 있다.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케 되기를 원한다. 주일날 예배 하면서 충만함을 얻어야 돼요* 현장은 진짜 음모와 술수 반칙과 편법이 가득한 곳인데요. 그래서 이 눈이 열려야 돼요. 나는 그릇이다.

2)그릇 - 너비,

엡3:7, 8, 9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세계복음화다. 이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오리라. 3:11에는 예정되어 있어. 우리가 하려면 힘든데 예정되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릇이 넓어져야 한다. 일단은 세계를 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쫄 못하면 있는 그대로를 못 봐요. 아니 바울이 사실은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는 걸을 아십니까? 그걸 에베소 교인들은 환란이라고 봤어요. 아, 참 바울이 복음 때문에 고생한다. 이렇게 봤다.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 속에 있다. 우리가 그만큼 잘못 해석하고 있다. 우리는 자꾸 내 생각을 붙여요.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를 못해요. 날씨가 왜 이렇게 추운거야 이런다. 사람을 봐도 저 사람은 내 스타일이 아니야 이런다. 이렇게 있는 그대로를 못 봐요. 그릇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그릇에 길이 아릅니까, 길이.

3) 길이 5:8

사람을 깨우셔야 돼요. 그래서 질문 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질문들을 하셔야 한다. 여러분 인생에 목적이 어딘가? 어디를 향해 가나? 도착지가 어딘가? 없어. 목표가 없어. 인생이 의미가 없는거야. 왜냐면 인생을 시작을 안 했어. 단지 생존 밖에 없어. 아 오늘도 안 굶어죽고 살았구나 이거다. 내가 삶에 뭘 해야 되는 게 없다면 그거와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그러다. 괜찮아 이 정도면 안 쪽팔리고 잘 산거야. 여러분 진짜 질문하세요. 자꾸 자신을 속이면 안돼요.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질문을 하세요. 이래서 깨워야 된다니까요. 청년들이 방황하는데 이 사람들에게 인간이 누군가 설명해줘야 한다.

4) 깊이

바울이 이 그릇의 깊이를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 뜨면 마귀의 간계에 속고 있다. 정치인도 속고 학자도 속고 있다. 안 속는 방법은 하나다. 무장하는거다* 하나님의 말씀은 못 속입니다* 다 속여요. 그런데 말씀은 못 속여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 묵상하는거다. 이번에 중직자에 777 이거 말씀 가지고 묵상하라는거다.

여러분 눈을 열어줘야 돼요. 이 말을 알아들어야돼요. 왜냐면 우리가 우리 교회가 이걸 안 하면 애네들이 청년들 눈 열어줘요. 인재들이 이 쪽으로 다 가고 있다. 왜냐면 교회가 이걸 안하니까. 그릇을 잘 보세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왜 껌대기를 뱉니까? 난 사람을 보면 거의 이해가 돼요. 뒤에것을 보니까. 아 빈그릇이구나. 이 사람이 귀신들렸구나. 세상은 두 가지예요. 빈그릇이거나 귀신들렸거나.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는거고. 기도하세요. 우리 청년들이 와서 영적인 눈 뜨는 묵상 속에 들어오도록. 이걸 위해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거세요.

전도자의 삶 Check List

전도자의 삶		일	월	화	수	목	금	토	계
오늘의 전도	아침에 1전도기획 10점								
	자료를 전달하면 10점								
	하루에 한 명에게 복음제시 10점								
오늘의 말씀	복음메시지를 듣거나 읽기 10점								
	하루에 성경 3장이상 읽기 10점								
	성구를 한 절씩 암송 10점								
기도의 내용을 적고 정시기도 10점									
10분이상 호흡 기도 10점									
하루에 30분 이상 운동 10점									
공부, 독서 10분 이상 했으면 10점									
하루의 점수 합계 (100점 만점)									

대안예수교광로외 죽전동부교회

홈페이지 : rt7000.com 스마트폰: rt7000.com/smart
전화 : 070)8887-2691 / 팩스 : 031) 898-2690